

## 7) 활 잘 쏘는 에르히 메르겐



### 이 동화는요

몽골에는 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해가 일곱 개나 되어 강한 빛과 열로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명궁수 '에르히 메르겐'에게 활을 쏘아 해를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들의 부탁을 받은 에르히 메르겐은 7개 중 6개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화살이 해가 아니라 제비 꼬리를 맞히는 바람에 하나의 해는 남게 됩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에르히 메르겐은 제비를 쫓아가지만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이 일로 화가 난 에르히 메르겐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타르바가'가 되어 캄캄한 동굴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하나의 해를 쏘아 맞히려고 땅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해는 이러한 에르히 메르겐이 두려워 숨었다가 다시 나오기를 반복하는데, 이 때문에 밤낮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동화를 통해 몽골의 '에르히 메르겐'에 대해 알 수 있고, 몽골의 활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해'와 '에르히 메르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의 '활'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몽골사람들은 7을 행운의 수로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해가 하나인 사실과 밤낮이 생기게 된 이유에 관한 설화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몽골말이 서양말과 달리 작지만 탄탄한 모습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사람들이 생각하는 맹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이 에르히 메르겐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곱 개의 해 중에서 하나만 남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 에르히 메르겐은 왜 '타르바가'가 되었나요?
- 이 이야기에서 밤과 낮이 생기게 된 까닭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알아봅시다.

- '타르바간(Tarbagan)'에 대해 알아보시다.

Tip!

다람쥐에 가까운 대형의 설치류로서 시베리아, 극동, 소련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몽골 마못(Mongol marmot)이라고도 하는데 타르바간(Tarbagan)은 알타이산맥, 시베리아동부, 몽고에 분포되어 있고 무리를 이루어 삽니다. 이 동물의 털은 밉크처럼 염색해서 재킷, 코트, 트리밍 등에 사용합니다.

- 몽골의 동물신화에 대해 알아보시다.

Tip!

몽골은 기록문학보다는 구비문학 전통이 풍부하므로 설화문학은 몽골을 아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몽골 설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유목민의 생활 습속과 자연환경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과 동물 담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신이담과 영웅담에선 주인공들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가축을 가지고 사는지 매우 과장적이고 미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몽골 설화의 독특한 한 갈래인 '탁발승 이야기'도 대개 초원을 배경으로 유목민의 생활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설화에 대해 연구한 한 한국학자는 몽골 설화와 한국 설화에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타르바간은 왜 발가락이 네 개가 되었나'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호리대 메르겐'은 '선녀와 나무꾼', '숯염소를 탄 장부'는 '서동설화', '양치기 터머르'는 '호랑이와 꽃감'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학자는 "고려와 몽골 왕실 간 인척 관계를 맺은 역사적 사실이나 고대에 흥안련 산맥 주변에서 민족들이 서로 흩어져 살았다는 학자들의 견해 등을 보면 두 나라가 유사한 소재의 설화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며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참고: 경향신문, 2007. 2. 2, '몽골의 설화 소개한 이만나 교수')

몽골 설화를 읽으면서 유사한 한국 설화와 비교해 본다면 더 풍부한 이야기 거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 - 몽골의 '활' 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 Tip!

몽골 사람들은 궁수(활을 쓰는 사람)를 존경하고 '활 잘 쏘십시오.'라는 인사말을 덕담으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활쏘기는 씨름, 말타기와 함께 몽골 최대의 축제인 '나담축제'의 3종 경기 중 하나입니다. 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명궁수의 칭호를 대통령령으로 수여한다고 합니다. 사실 유목 민족인 몽골 사람들에게 '활쏘기'는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 이상의 정신적 의미를 가지는 문화입니다. 몽골에서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활쏘기에 참여합니다. 나담축제에서도 남자 경기와 여자 경기가 각각 열립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메르겐'은 나담축제의 활쏘기 종목 최종 승자에게 붙는 칭호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몽골의 활쏘기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전수되지 않아 현재에는 사라진 부분이나 묻혀 있는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 체험해 봅시다.

- 일출 혹은 일몰 모습이 담긴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모아 봅시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느낌과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에르히 메르겐'이 한 일을 떠올려 보고 가장 인상 깊은 행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편지를 적어 봅시다.
- 활을 쓰는 몽골의 남녀노소 사진을 찾아보고, 활쏘기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점을 정리하여 '몽골의 활쏘기 문화'에 대한 팸플릿을 만들어 봅시다.
- 타르바간을 그리고 색칠해 봅시다.
- 해와 달, 낮과 밤에 관한 다른 나라의 설화를 찾아보고 다른 점을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 나라마다 좋아하는 숫자, 싫어하는 숫자를 찾아봅시다.



### 참고자료

- 이평래(2010) 글, 전인성 그림, 『초원에 뜬 별이 들려주는 이야기』, 웅진다책 : '메르겐'을 비롯한 몽골 신화가 개성 있는 그림과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 이안나 율김(2007), 데 체렌소드눔 저, 『몽골의 설화』, 문학과지성사
- 몽골 활과 활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martial-arts.tistory.com/759>  
<http://mongolro.tistory.com/463>